

## 대한민국

### 국가 요약:

협약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2013 부터 발효되어있다. 2021 년에, 대한민국은 불이행 패턴을 보였다. 구체적으로, 한국 법 집행 관료들은 탈취 사건의 반환 명령을 집행하는데 실패하였다. 이러한 실패의 결과로, 협약 아래 탈취된 아이들의 반환요청의 50 퍼센트가 12 개월 이상 미해결된 채로 남았다. 평균적으로, 이들 사건들은 1 년 7 개월동안 미해결 상태였다. 국무부는 대한민국을 이전에 등재한 적이 없다.

### 행한 조치들의 보고:

워싱턴 D.C. 와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의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협약 반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여 제기 하였다.

2021 년 6 월, 서울 주재 미대사관은 한국 중앙당국의 장 (역자 주: 법무부장관) 에게 한국 외교부를 통하여 외교 서한을 전달하여, 대한민국의 협약 반환 명령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.

2021 년 7 월, 서울 주재 미대사관은 한국 중앙당국의 장에게 법원이 내린 미성년 아동의 반환 명령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한국 법체계의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추가적인 외교서한을 전달하였다.

2021 년 10 월, 아동 문제 사무소는 한국 중앙당국에게 서한을 보내, 협약 반환 명령이 집행이 되지 않은 계류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, 대한민국이 이들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.

2021 년 11 월, 서울 주재 미대사관의 총영사는 한국 외교부의 영사 업무 지휘자를 만나 협약 반환 명령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과 한국의 긴 법적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.

또한, 2021 년 11 월, 서울 주재 미대사관의 총영사는 한국 중앙당국의 장과 만나, 대한민국의 미해결 협약 사건들을 조명하고, 협약 반환 명령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.

2022 년 5 월에는 한국 및 몽고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부서가 한국 대사관 관료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협약 반환 명령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무부의 계속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.

2022 년 6 월, 아동문제 사무소 관료들이 워싱턴 D.C. 주재 한국대사관 관료들과 만나, 미해결 탈취 반환 사건들의 집행 노력을 협의 하였다.

또한, 2022 년 6 월에 2022 년 연례 보고서의 발표 이후, 아동문제 사무소의 장이 한국 중앙당국 장이 워싱턴 D.C. 를 방문할 때, 그와 만났다. 그들은 대한민국이 미해결 탈취 반환 사건들과 협약 반환 명령을 집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들을 협의 하였다.

2022 년 7 월, 서울주재 미대사관의 대사 대행이 정치부 외교부 차관 대행에게 2022 년 연례보고서에서 불이행 패턴을 보이는 문제로 등재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외교서한을 전달하였다.

또한 2022년 7월 관리와 자원 담당 국무부장관 대리가 대한민국의 외교부 제 2 차관에게 국제 부모 아동 탈취 사건들에 대한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하였다.